

문법 · 문장인지 · 심리적 실체

공 영 일

지난 10여년 간에 걸쳐, 심리언어학, 담화분석, 화용론등의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언어현상을 이론언어학적 개념이 아닌 언어사용에 관련된 기능적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하려는 제안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즉 언어현상이 언어사용자의 심리적 속성이나 정보전달 전수의 편의 혹은 필요 등의 기능적 개념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언어현상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근년에 시작된 새로운 것이 아니다. 매우 사유적이고 추상적인 것이긴 했으나 고대 회랍철학의 언어의 기원에 대한 Hocus - pocus대 God's Truth 논쟁이 그것이고 Zipf(1949)의 최소노력이론이나 Martinet (1962)의 기능부하 (functional load)이론 등도 우리에게 비교적 잘 알려진 것들로서 언어사실을 기능적으로 설명하려는 최근의 시도들이었다.

그러나 근년의 기능적 이론들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 이론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태도 중의 하나가 순수언어이론인 변형문법이론과 기능이론들 간의 관계가 상호보완적인 것이 아니고 상호 배타적인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데 있다. 이들의 그러한 입장은 그들 사이에 내용상 많은 차이가 있어 한 마디로 말하기는 어려우나 극단적으로 표현된 것을 본다면, 이론문법에서 제안하는 문법규칙이나 개념들이 어떤 의미를 지닌다면 그것은 문법 외적인 processing strategies 나 pragmatic purposes 등을 축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데에 있으며, 이러한 기능적 접근법에 의해 분석될 수 없는 문법단위들은 이론문법가들이 문법이론 구축의 편의에 따라 만들어낸 심리적 타당성이 전혀 없는 이론적 허구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¹⁾ 이 말은 기능적 설명력을 이론단위 설정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 이론문법의 존재 자체를 인정치 않는 것과 같은 말이 되어 기능주의자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별로 많을 것 같지 않아 우리가 문제삼을 것이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이들 기능이론들의 주장을 조금 작도를 달리해서 이해하면 그 주장의 핵심은 언어구조의 기능적 결정론(functional determinism)이고 이론문법에서 설정하는 문법단위들은 심리적 실체성(psychological reality)을 지녀야 한다는 것이 된다. 기능적 결정론이나 심리적 실체성의 문제는 오랫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으면서도 아직도 많은 오해를 남기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오해가 오늘날과 같이 문법이론과 기능이론들이 서로 대립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게 된 원인 중의 하나로 생각된다. 이 글에서는 이 문제들에 대한 실상을 문장이해이론의 입장에서 살펴보고, 일반적인 순수이론과 기능이론간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려 한다.

언어의 문법구조가 인간의 문장이해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구조되어 있을까 하는 문제는

1) Lakoff and Thompson (1975), Schank (1972), Givon (1979) 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라 볼 수 있다.

언어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번쯤은 생각해 본 문제일 것이다. 실상, 언어사용자가 문장을 이해하는 과정을 관찰하면 문장이 이해되고 하는 것이 순시적 음성자료가 나타내는 의미를 극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 매우 한정된 기억능력만을 갖고서 회수하는 아주 효율적인 일종의 정보처리과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효율적인 정보처리장치일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언어구조 또한 효율적인 정보처리를 가능케 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으리란 것을 가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정을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구조의 특정한 형태나 문법규칙들에 대해 기능적 설명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알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언어구조에 대한 기능적 설명의 시도는 단순히 기능적 가정을 시험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언어사용의 기능적 측면이 언어구조에 어떠한 영향 내지는 압력을 가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문장 처리에 관계하는 인지구조와 그 작용 특성이 밝혀지면 그 대부분의 해답을 얻어낼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인지구조에 대한 지식이 매우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어 언어구조와의 상관관계를 논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문장이해이론은 문법구조의 기능주의적 결정론을 가정하고 그 가정의 시험, 즉 문법구조를 기능적으로 설명하려는 시도를 통해서 문장인지구조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자료를 얻어 내려는 노력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볼 때 문법구조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문법의 실체를 부인하려는 것과는 전혀 관계없이 문장이해이론 안에서 문장인지구조의 특성 규명을 위한 방법론적 수단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성격을 지닌 기능적 설명 중 가장 간단하고 잘 알려져 있으므로 영어에서 종속절이 문두에 올 때는 그것이 종속절이라는 것을 표시하는 문법적 표시를 의무적으로 가져야 한다는 문법적 제약에 대한 것을 들 수 있다. Bever (1970)와 Chomsky & Lasnik(1977)은 이러한 문법적 제약은 영어에서 종속절 표시가 없는 문두의 절은 자동적으로 문장의 주절로 이해하려는 성향을 인지구조가 갖고 있다고 가정하면 설명될 수 있다고 말한다. 즉 이 가정은;

- (1) a. That he is so cantankerous is a shame.
b. *He is so cantankerous is a shame.
- (2) a. It is a shame that he is so cantankerous.
b. It is a shame he is so cantankerous.

(1)번 (a-b)문장들의 문법성의 차이를 기능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1)번 문장과 (2)번 문장의 문법성의 차이도 설명할 수 있다. (1b)가 비문인데 (2b)와 같은 문말 무표식 종속절이 허용되는 이유는 문법집사가 없진 하나 주절을 뒤따르고 있어서 parser가 그것을 주절로 오인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parser의 성향은 영어와 같은 right-branching language에서는 종속절이 주절을 뒤따르는 것이 표준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종속절표식이 없다 하더라도 문말의 종속절을 주절로 오인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렇듯 의형적으로 관찰하면 무원칙적인 것처럼 보이는 문법적 제약이 문두주문원칙이라는 인지원칙을 가정하면 자연스럽게 설명됨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문두주문원칙은 영어인지구

조의 한 특성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받게 되는 것이다.

인지적 설명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문법제약으로는 Fodor(1979)가 The XX Extraction Constraint 라고 부른 것이 있다.³⁾(3)과 같은 여격동사구문에는 두개의 명사가 나란히 뒤따르게 되는데 앞의 것은 여격동사 *give*의 간접목적어이고 뒤의 것은 직접목적어이다.

(3) Sam gave his friend a sandwich.

위와 같은 문장에서 직접목적어 *sandwich*를 전치이동해서 다음과 같은 의문문이나 관계대명사구문들을 도출할 수 있다.

(4) What did Sam give his friend Δ ?

(5) The sandwich which Sam gave his friend Δ was scrumptious.

그런데 간접목적어 *his friend*를 전치하면 대부분의 *native speaker* 들에게는 이상한 문장이 되어 버린다.

(6) Who did Sam give Δ a sandwich?

(7) The person whom Sam gave Δ a sandwich wasn't hungry.

대부분의 사람들이 위의 문장들을 간접목적어가 전치된 것으로 이해하지 않고 마치 직접목적어가 전치된 것으로 이해하고 이상한 반응을 나타낸다. 즉 문장(6)의 경우, “샘이 샌드위치에게 어떤 사람을 준다”는 식으로 이해하든지 현실적으로 자연스러운 의미해석을 위해 *Who did Sam give a sandwich to?* 로 이해하고 왜 *to*가 빠졌느냐고 되묻는다. (6~7)과 같은 문장에 대한 반응은 사람에 따라 그 정도가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해서 이들 문장을 일반성있는 문법규칙에 의해 도출된 정문으로 인정을 하되 사람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 (6~7)문장의 unacceptability는 문장인지과정의 요인으로 돌리자는 주장도 있으나, (Jakendoff and Culicover (1973); Langendoen, Kalish-Landon and Dore (1974)), Fodor(1978)는 아래와 같은 문법적 제약으로써 이들 문장의 문법성을 설명하고 있다.³⁾

(8) If at some point in its derivation a sentence contains a sequence of two constituents of the same formal type, either of which could be moved or deleted by a transformation, the transformation may not apply to the first constituent in the sequence.

2) 여기에 인용된 예문은 Fodor (1978, 1979)의 것들이다.

3) Fodor가 The XX Extraction Constraint를 순수한 인지적 제약으로 보지 않고 문법제약인 Non-ambiguity Constraint로 제안한 이유는 아래의 문장의 경우처럼 이 제약을 어기는 문법적인 문장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것은 Fodor (1978)을 참조할 것.

a. They told the girl whom the boy liked Δ the story.

b. *They told the girl whom the boy liked the story Δ .

문법제약 (8)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어렵지 않다.⁴⁾

parser가 (4)와 같은 이동변형된 문장을 parsing할 때에는, 먼저 *what*가 문장의 어느 위치에서 전치이동되었는지를 결정해야 한다. parser가 문장(4)를 이해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이는 *what*이라는 filler가 문말의 Δ (gap)에서 전치되었다는 것을 쉽게 parse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parser는 문장(4)를 parsing할 때 문두의 *what*가 문장 내의 다른 위치에서 이동되어 왔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short-term memory에 hold하고서 문장의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가면서 *what*이라는 filler가 들어갈 gap의 위치를 찾게 되는데, 문말에 와서야 문장의 의무구성요소인 NP가 비어있는 gap을 발견하여 filler *what*을 채움으로써 문장(4)의 parsing이 끝나게 된다는 것이다. 위와 같은 parsing 과정에서 문장(4)의 경우에는 parser가 filler와 gap을 연관시키기에 어려움이 없다. 그러나 문장(6)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앞서 말한 문장(6)에 대한 native speaker들의 이상한 반응은 filler와 gap을 연관시키는데 있어 parser가 실수를 범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즉 filler *who*가 들어갈 자리를 *give* 바로 뒤의 gap의 위치가 아닌 문말인 것으로 잘못 판단한다는 것이다. 왜 parser가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가는 쉽게 설명된다. 문장(6)에서의 gap(Δ)은 parser가 받아들이는 음성입력 속에서는 아무런 표식도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parser는 *give* 뒤의 gap의 존재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뒤따르는 *a sandwich*가 *give*를 바로 뒤따르는 NP로 인지할 것이다. 그리고 문장(4)에서와 같이 문말에 와서 그곳을 gap으로 인지할 것이나, filler와 gap이 잘 연관지어 지지 않는 것을 발견하고, 문장(6)을 문미에 *to*가 빠진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주장하거나, 의미적으로 이상하다 하더라도 억지로 *who*를 문말의 gap에 위치시켜 직접목적어로 processing할 것이다. 사실 아무리 filler를 hold하면서 gap의 위치를 찾는 processing을 하고 있는 중이라 하더라도 *give* 뒤에 명사가 뒤따르고 있는데 그 사이에 NP가 매워져야 할 Δ 이 있는 것으로 parsing하는 parser가 있다면, 특정한 문장(6)과 같은 경우를 정확히 process하는 parser일런 지는 몰라도 일반적인 견지에서 보면 매우 비효율적인 이상한 parser일 것이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전혀 그렇게 할 필요도 이유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parser는 (6)과 같은 문장을 parsing할 때는 그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문법제약(8)이 하는 일은 문장(6)과 같이 parser가 실수를 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생성하는 이동변형규칙의 적용을 막는 제약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달리 표현하면 문법제약(8)은 일반성있는 문법의 이동규칙이 특정구조의 문장에 적용되었을 때 구조적으로 애매한 문장을 생성하게 되는 경우, 두개의 애매한 reading 중 하나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이

4) Dative question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Langendoen, et al (1974) 등의 이른바 Role Assignment Model과 Jackendoff and Culicover (1973)의 Position Assignment로 대별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Fodor (1979)를 따라 후자의 입장을 취하기로 한다. 또한 일반적 parsing routine은 역시 Fodor (1979)의 superstrategy의 모형을 따르기로 한다. Superstrategy는 변형된 문장을 마치 변형되지 않은 심층구조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는 문장을 parsing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parsing한다는 model이다.

제약에 의하여 제거되는 reading은 parsing mechanism의 성격상 도저히 읽어낼 수 없는 바로 그 reading이라고 말할 수 있다. ambiguity를 어떻게 풀어가느냐의 문제는 문장인지 이문 특유의 것으로서 parsing mechanism이 어떤 구조의 것이며 그 작용특성이 어떤 것인가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한다. 문법제약(8)의 경우는 parsing mechanism이 도저히 풀어낼 수 없는 성격의 ambiguity를 문법이 제거하는 경우로서 문법과 문장인지행위 간에 interac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다면, 만약 문법제약(8)에 대한 우리의 인지적 설명이 옳다면, 그것은 parsing routine이 문법제약의 형태를 결정하는 한 요인이 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 될 것이며, 또한 parsing mechanism의 작용특성과 구조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보탬이 되는 가설적인 설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The XX Extraction Constraint와 관련하여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는 과연 문법이 모든 종류의 ambiguity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일까 혹은 특정한 성격의 ambiguity에만 반응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parser가 문장의 문법구조의 애매성 때문에 저지르는 실수를 막기 위하여 문법이 반응한다는 가정은 제약(8)의 경우를 통해서 상당한 뒷받침을 받게 됐는데 그러면 문법은 parser가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애매성에 대하여, 어떤 형태로든 반응을 하는 것일까 혹은 특정한 성격의 것에만 반응하는 것일까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는 아래와 같은 문장의 인지특성을 관찰하면 어느정도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⁵⁾

- (9) a. Which book_i did the teacher read (△) to the children from △_i ?
 b. Which book_i did the teacher read (△_i) to the student?
- (10) a. Who_i did John kill (△) for the sake of △_i ?
 b. Who_i did John kill (△_i) for the sake of his uncle.
- (11) a. Which student_i did the teacher walk (△) to the cafeteria with △_i ?
 b. Which student_i did the teacher walk (△_i) to the cafeteria?

문장(9-10)의 (a)문장들은 parsing routine으로 볼 때 filler which book으로 메울 수 있는 gap이 둘 있어서 구조적으로 애매한 문장들이고, 이 문장들은 상대적으로 gap이 하나 뿐인 (b)문장보다는 parsing하기가 힘들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a)문장이 (b)문장보다 난해한 이유가 (a)에는 gap이 둘 있고 (b)에는 하나 밖에 없기 때문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은 (11) 문장에서는 gap이 둘 있는 (a)문장이 gap이 하나 있는 (b)문장보다 덜 난해하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 문장이 난해한 이유는 parser가 (a)문장을 parsing 할 때 (b)문장의 경우처럼

5) 예문에서 괄호 속에 표시된 gap (△)은 optional한 gap position을 표시한다

read 나 *kill* 다음의 **optional gap**을 **true gap**인 것으로 잘못 알고 그 자리에 **filler**를 위치시키기 때문이고 문말에 가서 **obligatory gap**을 발견하고서야 잘못 위치시킨 것을 알고 잘못 위치된 **filler**를 문말의 **true gap**에 다시 위치시키는 **parsing**을 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은 (a)문장이 난해하다는 것과 아울러 (b)문장이 상대적으로 쉽게 이해된다는 것도 설명한다. **parser**는 (9-10)문장처럼 주문동사가 *read*나 *kill*인 경우, 동사 다음에 있는 **optional gap**을 **true gap**으로 인지하려는 성향을 갖고 있고,⁶⁾ 이러한 성향이 (b)문장의 경우에는 성공적인 **parsing**을 하게 하여 쉬운 문장이 된다. 그러나 (a)문장의 경우에는 바로 그 **parser**의 성향으로 인해 실수를 범하게 되어 난해한 문장이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a)문장의 경우 **parser**의 성향으로 보아 실수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애매성을 구조적으로 지니고 있는에도 문법적으로 정문이라는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9-10)의 (a)문장의 경우의 애매성도 (6-7)문장의 경우처럼 **parser**가 실수를 범할 수 밖에 없는 애매성인데도 문법이 이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앞서 제기한 문제 중 문법이 모든 종류의 애매성에 대하여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해답을 얻을 수 있다.

그렇다면, 문법이 어떤 종류의 애매성에 반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며 이 문제는 (6-7)문장과 (9-10) a 문장의 애매성을 비교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두 문장의 차이로 애매성의 성격 면에서 찾기는 어렵지 않다. (9-10) a 문장의 경우에 있어서 애매성은 일단 **parser**가 첫째번 **gap**의 위치에서 실수를 저지르지만, 문말 **gap**에 다달아서 실수를 범한 것을 깨닫고 그 실수를 고치게 되는 종류의 애매성이다. 거기에 반해서 (6-7)의 경우는 **parser**가 실수를 범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깨닫지 못하고 *to*가 빠진 비문법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든지, 뜻이 잘 통하지 않는 **parsing**을 억지로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위에서 보았다. 다시 말하자면 (6-7)의 경우는 **parser**가 이들 문장이 **alternative interpretation**이 가능한 문장이라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는 종류의 애매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문법이 후자와 같이 **parser**가 알아낼 수 있는 **temporary ambiguity**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않고, **parser**의 성향상 전혀 알아차릴 수 없는 성격의 애매성에 대해서만 반응한다고 일단 가정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이야기를 해야 할 성격의 것이나,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하여 Fodor(1978)중에서 관계되는 부분을 인용함으로써 대신하겠다.

... the likelihood the grammar will respond to any given parsing difficulty will be a function of the seriousness of the parsing problem and the complexity of the constraint that would be needed to resolve it. The seriousness of the parsing problem will itself be the product of at least

6) **parser**의 이러한 성향에 대한 가설은 ATN의 **parsing routine**의 일부로 제안되어진 것으로 **Lexical Expectation Model**이라 불리운다. 자세한 것은 Fodor (1978) 참조.

two factors: the extent of the mismatch between the correct analysis of the sentence and the analysis that the parser will compute; and the likelihood that the parser will remain unaware of its error. In the extreme case the parser will arrive at a totally incorrect analysis of the sentence and will have no way of knowing that it has done so. If the parser tends to overlook one analysis of a temporarily ambiguous word string, the analysis it does compute either will be the correct one or else will prove incompatible with the remainder of the sentence, which will indicate that an alternative analysis must be sought. But in a fully ambiguous construction, only semantic, pragmatic, and contextual cues can indicate that an alternative analysis is available and its existence may therefore go completely unnoticed.... And this is what we find for the XX constructions. (p.445)

또 하나의 non-ambiguity constraint 로서 우리의 논의에 직접 관계되는 문법계약으로 Fodor(1978,1979)에 의해 제안된 The Nested Dependency Constraint가 있다.

(12) The Nested Dependency Constraint (NDC)

If there are two or more filler-gap dependencies in the same sentence, their scope may not intersect if either disjoint or nested dependencies are compatible with the well-formedness conditions of the language.

NDC는 아래와 같은 문장에 있어서의 gap-filler 관계를 설명해 준다.

(13) What are boxes easy to store Δ in Δ ?

위의 문장에서 *what*는 문장 내의 두개의 gap 중 어느 것의 위치에서도 *wh-movement*에 의하여 문두로 이동되어 질 수 있고 *boxes* 역시 어느 gap 위치에서라도 *tough-movement*에 의해 원위치로 이동되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문장 (13)에서의 gap-filler 관계는 두개의 interpretation 이 가능한 애매한 관계일 것이라는 가정을 일단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래 (14)문장에서 보는 것처럼 실제로는 두개의 가정된 reading 중 하나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4) a. What_i are boxes_j easy to store Δ_j in Δ_i ?

b. *What_i are boxes_j easy to store Δ_i in Δ_j ?

즉, 두개의 가정된 gap-filler 관계 중 (14b)와 같이 서로 교차되는 관계는 허용되지 않

고 (14 a)처럼 **gap-filler** 관계선이 서로 교차되지 아니하는 관계만이 정문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일반화시켜 문법제약의 형태로 표현한 것이 (12)의 NDC 이다.

그러면 Fodor가 NDC를 **parsing routine**의 뒷받침을 받는 문법제약으로 제안하였는데 그 인지적 근거가 어떤 것인가를 알아보아야 할 것이다. NDC의 인지적 설명을 위해서는 XX **Extraction Constraint**에 대한 인지적 설명 때처럼 **parser**의 작동특성의 일부로서 **superstrategy**를 가정하여야 한다. **Superstrategy**에 의해 작동되는 **parser**는 어떤 문장이든 일단 구조적으로 **well-formed**된 심층구조를 표면에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가정하고 **parsing**을 해 나간다. 표면 구조가 심층구조로부터 변형되어 있을 때는 심층구조로 회복시키는 **parsing**을 하게 되는데 그때 만약 그 방법에 있어 하나 이상의 **alternative parsing routine**이 있으면 심층구조를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쪽의 **routine**을 택한다는 것이다. **memory mechanism**인 인간의 **parsing mechanism**에게 있어 정보처리될 자료가 내부구조를 가지면 가질수록 그 만큼 **memory**에 저장하는 부하가 줄어들게 된다. 그렇다면 **superstrategy**의 가정은 **parser**가 **memory**에 부담이 덜 가는 **parsing alternative**가 있으면 그 쪽을 택하여 정보처리를 한다는 말이기 때문에 극히 합리적인 가정이라 생각할 수 있다.

문장 (13)의 인지과정을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먼저 **parser**는 **what**가 다른 위치에서 문두에로 전치이동된 NP이고 또 **easy**에 다달아서 **boxes** 또한 전치이동된 (**tough-movement**에 의하여) NP임을 인지하게 된다. 따라서 **parsing**이 **store** 다음의 **gap**까지 진행되었을 때 **parser**는 이 **gap**을 메울 수 있는 두개의 **filler what**과 **boxes**를 hold하고 있는 셈이 된다. 이때 **boxes**로써 **gap**을 메우게 되면 (**what**) **it is easy to store boxes**가 되어 적어도 **it**이하 부분은 문법적인 절 (**clause**)로서의 심층구조의 요건을 충족시켜 주게 된다.⁷⁾

그러나, **what**으로써 **gap**을 메우게 되면 **Boxes are easy to store what**가 되는데 **what**까지 모든 부분이 아직 문법적인 심층구조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superstrategy**를 **parsing routine**의 한 부분으로 갖는 **parser**는 **boxes**를 첫번째 **gap**에 메우는 **processing**을 하게 되며 **what**로서 메우는 **alternative**는 **parser**의 성향에 어긋나는 것으로, 고려를 하지 않게 된다.⁸⁾ NDC는 바로 이 **parser**가 고려하지 않는 **filler-gap**의 관계를 문법적으로 제거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⁹⁾

이렇게 보면 NDC는 XX **Extraction Constraint**와 마찬가지로 일반성 있는 문법규칙에

7) 논의를 간단히 하기 위하여 **tough**-구문의 **parsing routine**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다른 설명들은 언급하지 않겠다.

8) NDC에 대한 또 다른 기능적 설명들이 Fodor (1978)에 제시되어 있다.

9) 지금까지 논의한 NDC에 대한 기능적 설명은 기본적으로 Fodor (1979)의 것과 같으나 또 다른 형태의 설명이 Kong (1981)에 제안되어 있다.

의하여 생성될 수 있는 인지적으로 애매한 구조 중 그 하나를 문법제약으로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 성격은 좀 다르다. (8)의 **XX Extraction Constraint** 경우에는 그것에 의하여 제거되는 **reading**을 **parser**가 그 존재조차 인지 못하는 성질의 것이었으나 **NDC**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¹⁰ 단지 **parser**가 **NDC**에 의하여 제거되는 **reading**을 문법적으로 허용되는 **reading**으로 고려조차 하지 않는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각도에서 보면 효율적인 **processing**을 가능케 하기 위해 **parser**가 비교차 (**non-intersecting**) **gap-filler** 관계를 지키는 성향은 인간 문장인지 장치의 매우 강력한 특성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문법이 제약의 형태로 반응했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러한 **parser**의 본질적인 효율적 인지특성이 문법제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시간과 기억 용량면에서 심한 제약을 받고 있는 인간의 문장인지장치가 효율적인 **processing**의 길이 열려 있는데 다른 가능성을 고려한다는 가정은 생각해 보기조차 힘든 일이다.

NDC는 여러 다양한 구조를 지닌 문장에 적용되는 일반성있는 문법제약으로 그 중 몇개의 예문을 들어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 있다.

- (15) a. Which violin_i is this sonata_j easy to play Δ_j on Δ_i ?
 b. *Which sonata_i is this violin_j easy to play Δ_i on Δ_j ?
- (16) a. Which children_i did he say that the book_j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Δ_j to Δ_i ?
 b. *Which children_i did he say that the book_j is too difficult for me to read Δ_i to Δ_j ?
- (17) a. Which book_i did he say the children_j are too young for me to read Δ_j to Δ_i ?
 b. *Which book_i did he say the children_j are too young for me to read Δ_i to Δ_j ?
- (18) a. The wood_i is too rough for these blunt nails_j to be easy for me to hammer Δ_j into Δ_i .
 b. *The nails_i are too blunt for this rough wood_j to be easy for me to hammer Δ_i into Δ_j .

10) 그것은 상호 교차하는 **gap-filler** 관계라 하더라도 그것이 유일하게 가능한 **reading**인 경우인 아래 문장의 경우 특별히 난해한 것 같지 않은 데서도 알 수 있다.

1. You_i found a sonata [wh]_j Δ_i to play Δ_j .
2. I told them_i what_j Δ_i to buy Δ_j .

- (19) a. **That wood_i is too rough for any nails_j, to be sharp enough for you to hammer Δ_j into Δ_i .**
 b. ***Those nails_j are to blunt for any wood_i, to be soft enough for you to hammer Δ_i into Δ_j .**

극히 제한된 특정구문에만 적용되는 XX Extraction Constraint와는 달리 NDC는 넓은 구조적 적용범위를 갖고 있어 문법제약으로서의 위치는 상대적으로 XX 제약보다 더 확고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NDC가 우리가 앞서 제기한 문법과 인지의 상호작용에 대한 가정을 긍정적으로 뒷받침하는 증거로 받아들여도 좋겠고, 문법과 인지의 상호작용의 내용은 XX와 NDC의 차이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가지 형태의 것일 것이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게 되며 따라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parsing mechanism의 구조와 그 작용특성을 이해하는데도 도움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지금까지 거론한 XX나 NDC를 문법의 한 부분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 그만큼 문법의 일반성을 저하시키는 결과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제약이 문법의 한부분으로 받아들여 졌다고 볼 수 있다면 인지가 문법에 꽤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지을 수도 있을 것처럼 보인다. 또한 이러한 결론은 영어 이외의 기타 언어에서 얻은 자료에 의해서도 뒷받침 되는데 기타 언어의 문법제약들도 XX제약이나 NDC와 마찬가지로 문법의 일반성을 저하시키는 하나 애매성을 감소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¹¹⁾

그러나 불과 몇몇의 극히 제한된 자료만을 관찰하고서 얻은 결론을 토대로 문법과 인지작용 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일반성 있는 가정을 세울 수는 없다. 적어도 우리는 그러한 가정으로 설명할 수 없는 자료들도 살펴보는 것이 꼭 필요하며 그것이 문법과 인지의 관계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한 자료를 찾는 것은 어렵지 않다.

우리는 두가지 종류의 부정적 자료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문법제약에 의해서 제약받지 않는 애매성이 있다는 것이요, 또 하나는 문법제약 중 문장이해장치의 작동을 용이하게 하는 것과는 관련지어 설명될 수 없는 문법제약이 많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문법제약에 의해서 제약받지 아니하는 애매성이 있다는 문제는 설명될 수 있을런지 모른다. 이미 언급했던 바와 같이 애매성이라 하더라도 XX나 NDC의 경우처럼 문장이해장치가 찾아낼 수 없는, 혹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alternative: reading을 가진 경우는 문법이 문법제약으로 제약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문장(9~11)의 경우는 문법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잃는 것은 문장이해장치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gap이 문법에서의 제약을 받아 일어날 수 없는 경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영어에서는 ②과 같은 문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 (20) *Which book were you waiting for — to be sent from the library?

11) Fodor (1981) 참조.

위 문장에서의 **gap position**은 쉽게 발견될 수 있는 데도 문법제약에 의해 비문으로 제약되며 아래(20)의 문장도 비슷한 경우라 할 수 있다.

(21) *Who did you speak to _____ and Tom?

gap을 쉽게 찾을 수 있으나 없느냐의 문제와 문법제약을 서로 관련지어 보려는 사람의 입장에서 *for-to* 제약은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현상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바로 그 구문이 문법과 인지의 상관관계를 적극적으로 주장해 주는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for-to* 제약에 의하여 제약되는 **gap**의 위치에 허사 'it'가 오면 문법적인 정문으로 받아들여진다.

(22) Which book were you waiting for *it* to be sent from the library?

이러한 것은 문장이해이론의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설명이 되는 현상이다. 대명사는 **gap**과는 달리 분명히 음성적으로 실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인지장치가 그것을 인지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따라서 문법이 거기에 제약을 가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데 반하여 음성적으로 실현되지 않는 **gap**은 문장인지장치가 인지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문법은 거기에 제약을 가한다고 설명할 수 있다. *for-to* 경우 뿐 아니라 대명사와 **gap**의 분포 차이를 일반적으로 설명해 주는 근거마저 마련해 줄 수 있는 희망이 보이는 것 같지만, (20)과 같이 분명히 인지가 가능한 **gap**이 문법에 의해 제약된다는 사실은 그러한 희망을 버리도록 강요하는 것이다.

위에서 본 *for-to* 구문의 경우가 문법과 인지의 상호관계에 대한 가정을 동시에 긍정하고 부정한다는 사실은 인지와 문법 간에는 매우 복잡한 여러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으며 이러한 복합요인들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아직 미친한 지금, 인지가 문법에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의 문제는 그 자체로서는 별로 의미가 없는 일이라 생각된다. 문법제약 중 어떤 것은 인지적 설명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다. **Filler**를 **gap**에다 매우는 **parsing operation**의 경우 **filler**와 **gap**의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parser**에게 부담이 덜 갈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이해된다. 왜냐하면 **parser**는 매워야 할 **filler**를 **hold**한 채 들어오는 **input**을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시간이 갈수록 **filler**를 **hold**하는 부담이 커질 것은 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래(23)의 문장은 이러한 가정을 정면으로 부정한다.

- (23) a. *Who was [that Tom had invited Δ] announced at the planning session?
 b. Who was it announced at the planning session [that Tom had invited Δ]?

(23 a)에서는 **filler**와 **gap** 사이에는 다섯 단어 밖에 없는데도 비문이고 (23 b)에서는 그 사이에 11개의 단어가 있는데도 정문이다. 물론 이런 현상은 달리 설명될 수 있는 것이긴 하

나¹²⁾ 이 역시 *for-to* 구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좁은 의미의 인지적 요인을 바탕으로 문법과 인지의 관계를 논의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이다. 지금까지 우리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인지가 문법계약형성의 한 요인이 되기는 하나, 문법계약이 지니는 특정 형태는 좁은 의미의 인지작용 이외의 많은 요인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장인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깊어지고 문법계약의 형태 결정에 작용하는 기타 요인에 대한 좀 더 많은 이해가 있기 전에는 문법이 문장인지 채택을 축약화시켜 놓은 것이라는 주장은 아무런 내용도 없는 허황한 구호일 뿐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는 우리의 또 하나의 관심사인 **psychological reality**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좋은 출발점이 된다. 종래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온대로의 심리적 실체성이라는 말은 어떤 문법적 개념 또는 규칙이 언어사용에 관련된 심리학적 설명에 도움을 주는 경우 -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심리적 설명의 한 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 그언어학적 이론단위들이 가졌다고 붙여주는 말이었다. 이런 언어심리적 배경을 지닌 좁은 의미의 심리적 타당성은 1960년대 언어심리학의 **Derivational Theory of Complexity (DTC)**로 해서 굳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 DTC는 너무나 많이 알려진 것으로 여기서 다시 논의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우리의 이야기를 이어가기 위해 필요한 만큼의 언급은 있어야겠다. DTC는 여러가지로 정의를 내릴 수 있지만 우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것 같아 **Berwick and Weinberg (1983)**의 정의를 소개한다.

The parser is organized so that each grammatical operation used to build either the surface structure or deep structure has a corresponding parser action that can be assigned a unit time cost. That is, in order to be counted as an 'active' component of the computation, each grammatical operation must take a unit of time to compute. A parser containing a grammar that maps between deep and surface structure by applying transformations would thus assign a unit cost to each one. Moreover, each such transformation is computed one at a time, i.e., serially. Thus the total cost of constructing the deep and surface structure is simply the sum of the total number of rules involved in the derivation of the sentence. Thus the relevant measure of complexity here is taken to be reflected in the time required to complete a parse. (p.9)

위의 정의를 살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것처럼 DTC는 문장의 난이도를 측정하는 기준을 제공한다기 보다는 문장의 이해과정을 설명하려는 하나의 **parsing model**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도 문법과 문장이해의 심리적 과정과의 관계가 하도 직접적이어서 시간과 공간에 무관하게 존재하는 정적인 문법모형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작동하는 동적인 문장이해

12) 다른 방법의 설명에 대해서는 Kong (1981), Langacker (1974) 참조.

이론으로 바꾸어 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문법모형이란 곧 문장이해과정의 정적 표현이다라는 DTC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장을 이해하는데 내포된 심리적 과정의 복잡성은 그 문장을 문법적으로 생성하는 과정에서 적용된 규칙의 수에 비례한다. 왜 그러냐 하면 하나의 문법규칙은 ‘a unit time cost’ 를 수반하는 ‘parser action’ 을 가지는 것이며 따라서 그러한 문법규칙이 많이 적용되면 될수록 문장이해과정의 parser action 은 많아지며 거기에 상응하여 ‘time cost’ 가 늘어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1960년대 초의 심리언어학자들은 그 당시의 변형생성문법이론을 동적 모형화한 DTC를 가정하였고 그 타당성을 실험하게 되었다. 초기의 실험들은 잘 알려진 것처럼 DTC를 뒷받침하는 듯 보였다. 실험방법으로 여러가지가 사용되었으나 우리의 주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지만, 그들이 밝혀낸 것은 단순긍정문보다는 대응하는 부정문, 의문문, 수동문이, 또 이것들보다는 대응하는 부정의문문, 부정수동문이 복잡하다는 것들이었다. 바로 이런 실험결과들은 DTC가 예측하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따라서 이 실험들은 문법규칙의 심리적 실제성을 증명해주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문법이론의 심리적 실제성에 대한 초기의 희망적 기대는 오래 지탱되지 못하였다. 여러 실험들이 DTC를 부정하고 있지만 가장 잘 알려진 것으로 Slobin(1966)을 들 수 있다. Slobin은 실험을 통하여 *John was loved by Mary* 등과 같은 ‘reversible’ 수동문은 대응하는 능동문보다 processing time이 길지만 *The cookies were smelled by John*과 같은 ‘non-reversible’ 수동문과 이에 대응하는 능동문 사이에는 그러한 processing time의 차이가 없다는 것을 밝혀내고 있다. reversible 이진, non-reversible 이진, 통상적으로는 다같이 수동변형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생성되어 나오는 것인데 이 두 형태의 문장 간에, 위에서 말한 것과 같은 processing time의 차이가 난다는 것은 DTC의 예측이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받아들여졌고 ‘reversible’ 수동문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대응하는 능동문과의 processing time의 차이는 수동변형규칙이라는 통사적 규칙의 적용때문이 아니고 비통사적 원인에서 오는 차이라고 주장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이는 수동변형이라는 통사규칙이 문장이해라는 심리적 과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따라서 심리적으로 실제성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러한 결론이 DTC라는 parsing model을 기초로 해서 내려진 것이고 더우기 DTC는 인간의 문장이해과정을 정확하게 모형화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내려진 결론이란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예로 든 Slobin의 실험결과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통사규칙의 심리적 실제성을 의심하는 대신 DTC자체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Berwick and Weinberg(1983)는 DTC의 가정 중 serial processing을 버리고 ‘simultaneous computation’의 가정을 도입하면, Slobin의 실험은 통사규칙의 심리적 실제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우리가 위에서 주장하려고 한 것은, 심리적 실제성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parsing model속에서만 거론될 수 있는 것이지 일반적 의미에서의 심리적 실제성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

이었다. 그런데 심리적 실체성이라는 문제를 거론하는에는 parsing model 뿐 아니라 문법모형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아래의 예들은 문법규칙의 psychological reality 를 부정하는 것들로 자주 이야기되던 것 들이다.

- (24) a. the red book.
 b. the book which is red
- (25) a. John was hit.
 b. John was hit by Fred.

1960년대 초기의 문법이론에 따르면 (24 a)는 (24 b)에서 규칙의 적용을 통해서 생성된 문장이다. DTC에 따르면, 당연히 (24 a)가 상대적으로 (24 b)에 비해 난해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그런데 실험결과로는 그러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Fodor & Garret (1967)). 또 (25 a)는 (25 b)로부터 by-phrase 를 삭제하는 규칙의 적용을 통해 생성되었다. DTC에 따르면 변형역사가 단순한 (25 b)가 (25 a)에 비해 용이한 문장이라는 예측이 내려질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DTC의 예측은 실험결과(Watt (1970))에 의해서 뒷받침되지 않았다. 심리언어학자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통사규칙이 심리적 실체성을 지니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오늘날의 통사이론은 (24 a)나 (25 a)를 대응하는 (b)문장에서 변형규칙의 적용을 통하여 생성하는 것이 아니고 기저부분에서 직접 생성하고 있다.¹³⁾ 그렇다면 (24~25)와 같은 문장들이 문법규칙의 심리적 비실체성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주장은 그 근거를 잃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가 보여주는 바는 문법구조의 심리적 실체성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문법모형과 인지모형의 바탕 위에서만 논의될 수 있는, 일종의 ‘derived concept’로서 특정모형의 문법이론이나 문장이해이론을 떠나서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것이 되고 만다는 것이다. 실상 오늘날 문법이론이 심리적 실체성을 갖지 못한 것이라는 일부 사람들의 통념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조차 분명치 않은 의사개념적 (pseudo-concept)인 심리적 실체성이라 할 수 있다. 1960년대 초의 DTC를 바탕으로 해서 내려진 결론을, DTC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DTC를 버린지 20년이 넘는 지금까지 그것도 그 당시의 문법모형이 그 원모습을 찾을 길이 없을 정도로 변해 버린 지금까지, 통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들의 주장은 우리가 관심을 둘 만한 것이 못되는 것이다. 물론 Bresnan(1978)의 말대로 문법이론이 지금까지 너무 ‘characterization’의 문제에 전념한 나머지 ‘realization’의 문제 - 즉 “How would a reasonable model of language use incorporate a transformational grammar?”의 문제 -에 대해 소홀했는지도 모른다. ‘Realizability’라는 것이 일반언어이론모형을 평가하는 하나의 metacriteria로 받아들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다. 또한 Bresnan(1982)은 우리가 생각하는 바와는 다른 개념의 심리적 실체성을 강력히 주장하고

13) Williams (1975), Bresnan (1972), Chomsky (1976) 참조.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간에 특정 언어이론모형이나 인지모형을 떠나서는 거론될 수 없다는 점에 있어서 우리 주장의 입장을 전혀 약화시키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주장을 잘 응축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언어이론의 심리적 실체성에 대한 Chomsky(1980)의 말을 인용함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우리의 결론에 대신하겠다.¹⁴⁾

We observe what people say and do how they react and respond, often in situations contrived so that this behavior will provide some evidence (we hope) concerning the operation mechanism. We then try, as best we can, to devise a theory of some depth and significance with regard to these mechanisms, testing our theory by its success in providing explanations for selected phenomena. Challenged to show that the constructions postulated in that theory have "psychological reality", "we can do no more than repeat the evidence and the proposed explanations that involve these constructions. Or ... we can search for more conclusive evidence, always aware that in empirical inquiry we can, at best, support a theory against substantive alternatives and empirical challenge; we can not prove it to be true. It would be quite unreasonable to argue against a claim for psychological reality ... on the ground that the evidence is weak and susceptible to explanation in different terms; needless to say, the evidence that supports the linguist's construction is incomparably less satisfying than that available to the physicist. But in essence the problems are the same, and the question of psychological reality is no more and no less sensible in principle than the question of the physical reality of the physicist's theoretical constructions. (pp.191-192)

지금까지 이 글에서 우리가 논의한 것을 크게 보면 문법과 문장인지이론 간의 관계에 대한 것이었으며, 논의의 요지는 일부 심리언어학자들이 주장하는 언어구조의 기능적 결정론이나 특정한 문장인지모형에만 바탕한 심리적 실체성은 알맹이 없는 빈털털이 주장이라는 것이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문법과 문장인지이론 간의 관계에 대한 생각을 밝히고 이 글을 끝맺으려 한다.

언어구조의 기능적 결정론이나 심리언어학적인 심리적 실체성이 갖는 가장 큰 문제는 지금

14) 언어 심리학자들은 심리적 실체성이란 심리적 실험 결과에 의해서만 가능될 수 있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개념을 그렇게 좁은 의미로 해석할 생각은 없다. Chomsky (1980)도 말하고 있듯이 informant judgement에서 얻은 자료를 토대로 하여 내린 결론이 심리학 실험실에서 얻은 자료보다 덜 "과학적"이라는 그들의 생각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언어라는 심리적 자료를 다루는 모든 분야는 각 분야의 방법론에 따라 심리적 자료를 얻을 수 있는 것이며 그런 의미에서 그 자료들은 심리적 실험에 의한 것이 아닐지라도 심리적 자료로서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다.

까지의 논의에서 되풀이해서 지적된 바와 같이 문장인지이론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한 너무 좁은 의미의 것이라는 것이었다. 기능적 결정론의 경우 문장인지적 요인이 문법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은 문법 형성에 영향을 주는 기타의 요인들이 동시에 고려되지 않는 한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 진부 조차 가려질 수 없는 성격의 것이며, 심리적 실제성의 경우도 문장인지모형, 문법모형, 그리고 기타의 언어사용에 관계되는 분야의 이론모형의 태두리 속에서 동시 고려될 때만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란 것을 우리는 이 글에서 강조했다. 그렇다면 문법과 문장인지의 관계에 대해 지금까지 우리가 주장한 것이 근년, 언어 관계 연구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언어연구의 module적 접근법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¹⁵⁾

문법과 문장인지 간의 관계를 module적 접근법으로 파악하려는 생각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Chomsky and Miller(1963)은 *The rat the cat the dog chased ate died.*와 같은 multiple center embedding 된 문장은 문법적으로는 정문이나 인지적 이유로 해서 비문법적인 문장인 것처럼 인지된다고 했다. 이럴 때 문법은 위와 같은 문장을 제외하기 위한 제약을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될 것이다. Bever(1975) 역시 종속절에서 보다는 주절에서 문장구성단위들의 이동이 덜 제한된다는, 소위 말하는 *penthouse phenomenon*이나 *It surprised me that Jim refused the offer. ?It surprised me Jim's refusing the offer. *It surprised me Jim's refusal of the offer* 등의 문장에 있어서의 acceptability의 차이에 대한 설명은 문장인지이론에서 주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Kong(1981)도 대명사문제에 대해 비슷한 주장을 한 바 있다.

문법과 문장인지이론의 관계 역시 언어를 형성하는 기타의 module들 - Physiology, Acoustics, Conversational principles 등등 - 이 유기적 상관관계를 지니며 상호 작용하여 한 구성 module 내의 변화는 상관되는 기타 module내의 변화로 연계되는 module적 접근법 속에서 교차될 때 비로소 그 참 모습을 파악할 수 있으리라 믿는다. 끝으로 첨언할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문법과 문장인지 간에 매우 직접적인 관계가 유지되어야함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¹⁶⁾ 이들의 주장을 module적 접근법의 입장에서 이해하면 언어를 구성하고 있는 module 중 다른 module에 비해 formal grammar의 module의 상대적 우위 내지 기본성을 주장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들 이론문법학자들은 언어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물을 다루는 분야는 여럿 있게 마련인데 그 중에서 어느 것이 상대적으로 기본적인 분야일 것인가를 논하거나 전제한다는 것은 활발한 협조적 연구분위기를 해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1960년대 초기 이론문법가들의 독선적 태도가 그 이후의 극단적인 기능적 결정론이나 문법무용론을 불러 온 큰 원인 중의 하나가 되었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15) module적 접근법에 대해서는 Newmeyer (1983), Chomsky (1981)을 참조.

16) 예를 들면 Berwick and Weinberg (1983) 등이 그들이다.

BIBLIOGRAPHY

- Berwick, R. and A. Weinberg. 1983. "The Role of Grammar in Models of Language Use." *Cognition* 13.
- _____. 1984. *The Grammatical Basis of Linguistic Performance*. Cambridge: The MIT Press.
- Bever, T. 1970. "The Cognitive Basis for Linguistic Structures." in Hay, J. (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New York: Wiley.
- _____. 1975. "Functional Explanations Require Independently Motivated Functional Theories." in *Functionalism*. CLS.
- Bresnan, J. 1972. *Theory of Complementation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MIT.
- _____. 1978. "A Realistic Transformational Grammar." in Bresnan, J., M., Halle, and G. Miller. (eds.) *Linguistic Theory and Psychological Reality*. Cambridge: The MIT Press.
- _____. (ed.) 1982.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Cambridge: The MIT Press.
- Chomsky, N. 1976. "Conditions on the Rules of Grammar." *Linguistic Analysis* 2.
- _____. 1980. *Rules and Representations*. Oxford: Basil Blackwell.
- _____.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Publication.
- _____. and H. Lasnik. 1977. "Filters and Control." *Linguistic Inquiry* 8.
- _____. and G. Miller. 1963. "Introduction to the Formal Analysis of Natural Languages." in Luce, P. et al (eds.) *Handbook of Mathematic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Fodor, J. 1978. "Parsing Strategies and Constraints on Transformations." *Linguistic Inquiry* 9.
- _____. "Superstrategy." in Cooper, W. and W. Lawrence. (eds.) *Sentence Processing*. Hillsdale: Erlbaum Associates.
- _____. 1981. "Does Performance Shape Competence?" *Phil. Trans. R. Soc. Lond.* B. 295.
- Fodor, J. and M. Garret. 1967. "Some Syntactic Determinant of Sentential Complexity." *Perception and Psychophysics* 2.
- Givon, T. 1979. *On Understanding Grammar*. New York: Academic Press.
- Jackendoff, R. and P. Culicover. 1973. "A Reconsideration of Dative Movements." *Foundations of Language* 7.
- Kong, Y. 1981. *Perceptual Nature of Pronoun Comprehension in English*. Ph. D. Dissertation. Kyung Hee University.
- Lakoff, G. and H. Thompson. 1975. "Introducing Cognitive Grammar." *BLS* 1.
- Langacker, L. 1974. "Movement Rules in Functional Perspectives." *Language* 50.
- Langendoen, D., N. Kalish-Landon, and J. Dore. 1974. "Dative Questions: A Study in the

- Relation of Acceptability to Grammaticality of an English Sentence Type." *Cognition* 2.
- Martinet, A. 1962. *A Functional View of Language*. Oxford: Clarendon Press.
- Newmeyer, F. 1983. *Grammatical Theo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chank, R. 1972. "Contextual Dependency." *Cognitive Psychology* 3.
- Slobin, D. 1966. "Grammatical Transformations and Sentence Comprehension in Childhood and Adulthood." *Journal of Verbal Learning and Verbal Behavior* 4.
- Watt, W. 1970. "On Two Hypotheses Concerning Psycholinguistics." in Hay, J. (ed.) *Cogni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nguage*. New York: Wiley.
- Williams, E. 1975. "Small Clauses in English." in Kimbal. (ed.) *Syntax and Semantics* 4.
- Zipf, G. 1949. *Human Behavior and the Principle of Least Effort*. Cambridge: Addison-Wesley.

경희대학교 외국어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